

인성과 물성을 같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선 후기 호론과 낙론 유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비화하였다. ①**이러한 논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새로운 타자(他者)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단지 오랑캐 중 하나에 불과했던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②**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문명권 전반의 화이(華夷) 질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신분 질서를 뒤흔들기 시작한 새로운 타자의 등장 속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이들을 ③**본성의 측면에서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성과 물성에 대해 이론(異論)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는 ④**다른 존재**로 인식하였고, 동론(同論)을 주장한 이들은 타자를 자신들과 ⑤**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20세기 이후에 진행되었던 우리의 근대화는 서양식 기준의 보편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적으로 서양과 다른 존재, 서양보다 열등한 존재, 즉 ⑥**서양의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근대 서양의 발전을 주도해 나갔던 주체들은 자신들을 ⑦**선하고 근원적이며 순수한 것으로**, 자신들과 다른 타자를 ⑧**악하고 파생적이며 타락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⑨**이러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서양의 타자로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서양이라는 우월적 대상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⑩**조선 후기 인성과 물성의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기인**하였고, 우리의 근대화는 동양인으로서 ⑪**타자화**된 자신을 서양의 근대적 주체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성이나 타자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⑫**그것들이 인성이나 주체와 같은지 다른지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⑬**이는 결국 ⑭물성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물성이 인성과 같다고 인정한다면, 타자가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버리고 주체를 닮아 간다고 하여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⑮**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1. ①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인성과 물성이 같은지 여부에 대한 논쟁

2. ②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

이전에는 양반과 남성들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3. ③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자신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

4. ④와 ⑤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                   |
|---|-------------------|
| ④ | 자신들과 다른 본성을 가진 존재 |
| ⑤ | 자신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 |

5. ⑥을 참고하여 본문에 나타난 '타자'와 관련된 조선 사회에서의 과정 2가지를 서술하세요.

|  |
|--|
| (1) 조선 사회에서 청나라와, 양반 또는 남성이 아닌 존재들이 새로운 타자로 등장하였다. |
| (2) 조선이 서양과의 관계에서 서양의 타자가 되었다.                     |

6. ⑦과 ⑧을 요약하세요.

|   |                 |
|---|-----------------|
| ⑦ | 우월한 존재(긍정적인 존재) |
| ⑧ | 열등한 존재(부정적인 존재) |

7. ⑨가 가리키는 인식을 서술하세요.

|                                   |
|-----------------------------------|
| 서양을 우월한 존재로, 서양 외부를 열등한 존재로 보는 인식 |
|-----------------------------------|

8. ⑩에서 '새로운 타자'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
|---------------|
| (1) 청나라       |
| (2) 양반이 아닌 사람 |
| (3) 여성        |

9. ⑩에 나타난 인과 관계를 서술하세요.

|    |                      |
|----|----------------------|
| 원인 | 새로운 타자에 대한 수용        |
| 결과 | 인성과 물성의 같고 다름에 대한 논쟁 |

10. ⑪의 주체(⑪이 누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서술하세요.

|    |
|----|
| 서양 |
|----|

11. 다음은 ⑫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
|-----------------------------------|
| (1) (물성)이 인성과 같은지 여부에 주목함         |
| (2) (타자)의 속성이 주체의 속성과 같은지 여부에 주목함 |

12. ⑬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                                   |
|-----------------------------------|
| 물성과 대비되는 인성, 타자와 대비되는 주체를 중시하는 의식 |
|-----------------------------------|

13. 다음은 ⑭의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 (1) (물성)을 인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
- (2) (타자)의 속성을 주체의 속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

14. 다음은 ㉕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물성)을 인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타자)의 속성을 주체의 속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물성)과 (인성)이, (타자)와 (주체)의 속성이 동등한 가치를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성이나 타자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